

7일간의 짧은 만남이 전한 감동

무뇌증 아이 출산을 결심한 부부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에 안겨 혼자 숨을 쉬는 건 그 자체로 기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라일라는 일주일간의 짧은 생을 마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지난 12월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테네시주 클리블랜드에 살고 있는 크리스타 데이비스(23)와 그의 남바 친구인 데렉 러브트(26)는 임신 18주차에 아기가 '무뇌증'에 걸린 사실을 알았다. 무뇌증은 대뇌반구가 아예 없거나 흔적만 남아있으며, 두 개골이 없는 것이 특징인 선천적 기형이다. 무뇌증에 걸린 태아는 사산되거나 태어나도 30분, 길어야 일주일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주유소 직원과 손님으로 만나 사랑에 빠진 이 커플은 1년 반 만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에 당황했지만 부모가 되기로 결심했다. 임신 16주에는 아기가 딸이라는 걸 확인하고 라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일주일 뒤, 라일라가 '무뇌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딸을 낳기로 했고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라일라는 2.7kg으로 살아서 태어났다.

크라이스타는 “라일라의 커다란 입술이 나를 먼저 반겼다. 뇌가 없는 라일라의 머리가 보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9개월간 뱃속에 품으며 사랑을 나누는 라일라가 내 품

라일라가 세상을 떠난 뒤 크라이스타와 데렉이 라일라를 낳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밝혀졌다. 라일라가 무뇌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들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유도분만을 통해 아기를 꺼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루라도 뱃속에 더 품고 있다가 죽지 않으면 출산하는 것이었다.

크라이스타는 “의사는 내게 라일라 출산에 성공하면 장기증으로 두 명의 아기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면서 “그 순간 나와 데렉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와 라일라는 함께 집에 가지 못하겠지만, 딸을 통해 다른 엄마와 아기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기적적으로 라일라는 무사히 세상에 나왔고, 심장 판막과 폐를 기증하며 두 명의 아기를 살리고 떠났다. 크라이스타는 “자식의 장기를 기증하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다. 하지만 내 자식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덧붙였다.

프러포즈 받았다고 퇴학당한 여대생

이집트의 한 여대생이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포옹을 나눴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13일 AFP에 따르면 이달 초 현지 인터넷에는 한 대학교 내에서 한 남성이 꽃다발을 품에 안고 무릎을 꿇은 채 한 여성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확산됐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정황으로 보아 영상 속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 프러포즈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해당 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고, 영상 속 여성이 카이로의 국립대학이자 이슬람학문과 수니파 이슬람교 교육 중심지로 꼽히는 알아즈하르대학교의 여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알아즈하르대학

의 징계위원회 측은 지난 12일,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해당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으며, 우리 대학은 해당 여학생으로 인해 명성이 실추됐다.”며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포옹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퇴학 사유를 밝혔다.

이슬람국가인 이집트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신체를 노출한 의상을 입는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재판과 징역 등 실형에 처해지고 있다.

반경 1km내 '세 집 살림' 차린 중국 바람둥이

3년 동안 불과 1km반경 내에 사는 세 여성과 결혼하고 살림을 꾸려 온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장쑤성에 사는 장 씨(36)는 4년 전인 2015년 첫 번째 아내를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자신의 고향인 허난성에서 또 다른 여성을 만나 두 번째 결혼을 시작했고, 또 얼마 후에는 안후이성에서 현지가 고향인 또 다른 여성과 세 번째 결혼을 했다.

장 씨는 부동산 사업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이를 통해 '세 집 살림'을 이어갔다. 두 번째 여성과 세 번째 여성 역시 부동산 중개를 하던 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 씨는 각기 다른 지역에 살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던 세 부인을 한 지역에 불러 모으는 간 큰 선택을 했다. 그는 1km 반경 내에 집 3채를 구한 뒤 부인들에게 해당 집으로 이사하게 했다. 그리고 사업상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세 집을 오가며 생활했고, 이러한 생활은 무려 3년간 지속됐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결국 탄로 나고 말았다. 2017년 3월, 그의 두 번째 아내가 우연히 장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나누는 메시지를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출장을 떠난다며 집을 나선 장 씨를 몰래 미행했다. 이후 자신의 집과 멀지 않은 동네에 사는 첫 번째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 씨를 확인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세 번째 아내와도 연락이 닿았고, 결국 '법적 아내'인 첫 번째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두 아내는 그를 혼인빙자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첫 번째 아내는 장 씨와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다중 결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나는 (첫 번째 결혼을 제외한 다른 결혼에 대해)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언론은 그가 최대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